2022년 / 8월 1주차

연구원 소식

2022년 회원의 날 안내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개원 13주년 기념식 및 회원의 날 이후 멈췄던 개원 기념식이 코로나 광풍을 뚫고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수로 계산해보니 1092일 만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의 날 즈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비는 마음을 모아 준비중입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22년 08월 27일(토) 15시 ~ 28일(일) 11시**
- **장소 : 고창 베리팜 힐링파크(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10번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이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록화 사업 보고서에 삽입될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자료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몬트리올의 애국가 – 1976. 08. 01

해방 이후 극심한 혼란의 와중이었던 대한민국 정부 초기인 1948년에 한국 선수단은 런던 올림픽에 참가했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도 핀란드 헬싱키까지 날아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세계의 건각들과 함께 했다.

28년 동안 줄기차게 올림픽에 도전했지만 금메달은 철저하게 개발도상국 코리아를 외면했다. 몬트리올 올림픽도 폐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폐막식 당일 양정모선수가 출전한 레슬링 자유형 페더급 결승전이 벌어졌다.

이때의 경기 방식은 지금과 달라서 이전 경기에서의 벌점과 경기 결과를 종합하여 성적을 결정했다. 즉 양정모는 폴패 또는 지나친 점수 차의 패배만 당하지 않으면 몽골의 오이도프를 꺾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월드컵 원정 1승에 목말라 있던 2006년 독일 월드컵, 토고와의 경기에서 2대 1로 리드하고 있던 한국팀이 시간을 끌기 위해 프리킥을 돌려 차버린 거 기억하시는가?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었던..... 하물며 양정모의 결승전은 그 백배의 흥분과 기대가 걸린 경기였다. 당연히 코치는 양정모를 불러 얘기했다.

"야 폴패만 안 당하고 크게만 안지면 이기는 거 알지? 수비 위주? 응 수비 위주"

그런데 양정모의 반응은 뚱했다고 한다. 발을 동동 구르는 코치를 외면하고 양정모는 폴승을 노리며 거칠게 달려드는 오이도프에 한치도 물러섬 없이 맞섰다. 두 번 싸워 1승 1패를 기록한 오이도프를 이기고도 싶었을 것이고, 72년 뮌헨 올림픽 대표에 선발되어 놓고도 '소수정예만 보낸다'는 우리나라의 지침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탔던 한을 멋지게 풀어보고도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꼼수 없는 대결 끝에 8대 6으로 리드하던 양정모는 막판 뒷심에서 오이도프에게 밀려 10대 8로 지고 말았다. 그러나 종합 채점 결과는 1점 차이로 양정모의 금메달이 결정됐다.

일요일이었지만 전국에 호외가 뿌려지고 전국이 뒤흔들렸다.
양정모는 국민적 영웅이 됐다. 귀국 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정모가 "운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얘기하자 즉시 한국체육대학교가 설립됐다.

지금도 물론 금메달은 귀하고 그것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1976년 8월 1일의 금메달은 그 순도가 지금관느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높았을 것이다. 물론 최초의 금메달이어서도 그랬겠지만,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의 의연함이 '일단 따고 보자'를 이겨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수단과 방법은 다음 이야기가 되어 버린 나라에서 더욱 그 정정당당함이 그리울 뿐이다.